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패러디 시 쓰기를 활용한 한국어문화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한혜민

(홍콩이공대학교)

조영미*

(국립가오슝대학교)

Han, Hae Min & Cho, Young Mi. (2021).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research through writing poetry using parody in synchronous online classes.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35(1), 1-16.

This paper is research on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education using Korean literature in synchronous online classes. Targeted students were Korean minor students in Hong Kong taking <Korean Through Media> and Chinese graduate students in Korea enrolled in <Presentation and Discussion Skills>. This paper poses a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education through writing poetry using parody, utilizing Korean modern poetry. Webex and Zoom were used as the primary online tools for this research.

The research indicates that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through writing poetry using parody in a synchronous, online setting activates interaction among learners and proves to be effective in learn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e Korean cultural class writing poetry using parody not only increased the learners' interest and level of understanding regarding Korean literature, but also allowed learners to actively exchange ideas on Korean culture. Reflecting on student feedback, it was found that the anxiety of writing could be reduced and interaction among learners could be activated through collaborative writing activities. Drawing from such result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fundamental resource when other instructors design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targeting domestic and foreign Korean students learning online synchronously.

I. 서론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수업이 비대면 화상 강의**로 진행되어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와 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제한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구책이 필요했다. 특히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쓰기는 말하기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과 함께 쓰기 지도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 수업시간 내 글쓰기 시간 부족, 쓰기 과제의 부족으로 인하여(원해영, 2014) 비대면 수업에서도 적절한 쓰기 수업이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이는 학습자들의 쓰기 실력의

* 제1저자: 한혜민, 교신저자: 조영미

** 비대면 화상 강의는 수업 진행 방식에 따라 동시적 강의(synchronous online class)와 비동시적 강의(asynchronous online class)로 나눌 수 있다. 본고의 수업 사례는 동시적 강의에 해당되며, 여러 연구에서 통용되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학습자들의 심리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서아람, 안기정, 2019). 따라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쓰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며 한국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을 경험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과정까지를 아우르는 교수-학습 방안을 '패러디 시 쓰기'에서 찾아보았다.

본고에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효과적인 쓰기 교수-활동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는 패러디 시 쓰기는 널리 알려진 기존 작품의 형식이나 특정한 문체를 존속시키면서 창작자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이질적인 주제나 내용으로 치환하는 문학적 모방을 통한 창작행위로 정의된다(손진은, 2015). 문학을 통해 읽기와 쓰기 능력 통합교육을 위한 전략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패러디라는 것이다(Bintz, 2012). 특히 외국어교육 현장에서는, 패러디 시 쓰기가 학습자들이 원텍스트를 읽고 이해한 뒤 자신의 경험과 사고를 그와 유사한 형식과 언어로 생산해 내므로 읽기와 쓰기가 결합된 유용한 학습활동이 된다. 따라서 패러디 시 쓰기를 적제시하는 교수-학습 방안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과 상호문화 능력¹⁾ 향상을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홍콩 내 한국어 부전공 과정의 <미디어로 배우는 한국어>와 한국 내 중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발표와 토론> 수강생들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을 국내와 해외의 두 수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학습 환경이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현대시를 활용하여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한 사례를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패러디 시 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이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며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학습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패러디 시 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가?

둘째,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간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패러디 글쓰기의 학습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가?

셋째, 패러디 시 쓰기를 활용한 한국어문화 수업의 효과는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교육의 현황 및 시사점을 검토한 뒤 한국어 교육에서의 현대시와 패러디 시 쓰기 활용 현황 및 그 효과를 알아본다. 다음으로 패러디 시 쓰기를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온라인 수업에서의 패러디 글쓰기의 다양한 교육 활동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피드백을 통하여 패러디 글쓰기의 교육적 효과를 논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교육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사이버 대학이나 온-오프라인 혼합수업(Blended Learning)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 상황으로 전례 없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자

1) Chen과 Starosta(1998)는 상호문화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 존중, 관용, 통합이 가능한 세 가지로 정의하며, 상호문화능력은 상호문화를 수용한 개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이에 따른 연구도 발 빠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의 인식 연구와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은성(2020)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온라인 수업에서도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수업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온라인 상호작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노정은, 임수진과 안윤숙(2020)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응답을 제시하며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교수법과 여러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안정민과 한혜민(2020)은 한국어 교사들이 온라인 상황에서 교수실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생들 간에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및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 사례에 관련하여 김시연(2020)의 연구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도구인 Zoom에서 응용 가능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소회의실 짝활동, 연극 활동, 영상 과제 제출 및 영상 및 피드백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주(2020)은 외국인 학부생의 비대면 한국어 수업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즉각적인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고 읽기와 쓰기는 동영상 수업을, 말하기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 방식을 선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박진철과 장지영(2020)의 연구에서는 Zoom의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동료 피드백 활동을 도입함으로써 쌍방향적이고 상호작용인 학습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위의 사례 연구 모두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될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동영상 수업의 설계 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교수자들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향상을 고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도구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수-학습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하여 쓰기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현대시를 활용한 패러디 시 쓰기 교육

패러디는 베끼거나 따오거나 바꾸면서 원텍스트 재의미화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며, 어떻게 베끼고 따오고 바꾸는가에 의해 문학적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기에 ‘방법적’ 베끼기, 따오기, 바꾸기라 할 수 있다(정끝별, 2017).²⁾

권혁웅(2010)은 모든 문학은 실질적으로 패러디라 정의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문학의 이해, 생산 과정에서는 패러디의 이해 및 생산 또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패러디는 나아가 문학의 표현 및 창작 활동 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으며 상상력을 고무시키는 창의성 교육과도 직결된다는 주장을 토대로(정끝별, 2017) 최근 높아지고 있는 대학 내 창의력 교육과 연계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학 글쓰기에서의 창의성을 강조한 손혜숙(2015)은 학습자들이 패러디 글쓰기를 통해 수용적 측면에서는 텍스트와의 대화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텍스트의 재생산 측면에서는 상상력과 창조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어교육에서는 패러디 시 쓰기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홍매(2008)와 이가원(2012)이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패러디 시 쓰기가 한국어교육에서 읽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으며, 문학텍스트를 이해하

2) 정끝별(2017)은 패러디(parody)의 어원인 ‘paradia’의 접두사 ‘para’는 ‘반하는/반대하는’이라는 대비 혹은 대조의 뜻과 ‘결에/가까이’라는 일치 혹은 친밀함의 뜻을 지니며, 패러디란 ‘의식적인’ 모방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영향이나 모방과 구별되고, 모방한 원텍스트를 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표절과 구별된다고 했다.

고 자기표현 글쓰기로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했다. 국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흥매(2008)는 ‘모방시 쓰기’는 읽기 기능과 쓰기 기능을 통합하여 지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그것이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으로서 시 교육의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언어기능 능력 제고의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패러디 시 쓰기 활동이 보다 구조화된다면 이것이 흥미 위주의 단순 활동으로 머물지 않고³⁾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및 한국문화 이해와 시의 형식 및 구성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패러디 글쓰기의 교수-학습 과정 및 결과물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패러디 글쓰기 자체가 창의적이지 않다거나 단순하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한국어 학습 과정에 있는 학습자들이 쓴 글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쓴 작품에는 모방하되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사고를 토대로 생산해낸 텍스트가 있고, 원텍스트를 읽고 이해 및 공감하는 독자의 반응을 살필 수 있다면 학습자들의 패러디 글쓰기 또한 창조적 행위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 현대시와 이를 활용한 패러디 시 쓰기 활동을 통해 한국어문화를 효율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사례의 연구 대상은 한국 A대학의 <발표와 토론> 수강생과 홍콩 B대학의 <미디어로 배우는 한국어> 수강생이다. 한국 A대학의 경우, 해당 과정은 2020년 2학기에 진행되었다. 수강생은 총 21명으로 강의 시간은 일주일에 2회 두 시간씩(총 100분)으로 4시수(3학점)이었다. 한국 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수-학습은 2, 3주차에 진행되었다. 이 강좌는 한국문화 학습을 통한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한국인과의 이상적인 교류를 학습 목표이자 수업 개요로 설정했다.⁴⁾

홍콩 B대학의 <미디어로 배우는 한국어> 수업은 2020/21년 1학기⁵⁾에 진행되었으며 수강생은 총 19명이었다. 강의 시간은 주 1회 세 시간(총 150분)으로 3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한국 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수-학습은 8주차에 진행되었다. 이 강좌의 학습 목표는 K-pop, 드라마, 영화, 웹툰, 광고 등 한국의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하여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⁶⁾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두 수업 모두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였는데 한국 A대학은 Webex로 B대학은 Zoom으로 진행했다.⁷⁾ 두 대학의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 및 학습 경험을 살펴보면, 한국어 학습 기간이 1

3) 윤영(2013)은 한국어교재 내 작품 감상 후 단계에 제시된 활동들이 학습자들의 반응을 심화하거나 확장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패러디 시 쓰기는 감상 단계에서 학습한 시와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흥미 위주의 쓰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4) 연구 사례의 교수자 두 명은 모두 국내·외 한국어교육 경력 15년 이상이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5) 홍콩의 학제는 1학기가 9월~12월, 2학기가 1월~4월이다. 2020/21년 1학기는 2020년 9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총 13주였다.

6) 두 교수자는 방학 중에 ‘실시간 수업에서 한국어 쓰기 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를 두고 논의하던 중, 패러디 쓰기를 시도해보기로 하였다. 학기 시작 전에 패러디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절차, 패러디 시 대상을 확정하였고 이후 이메일, 메신저, Zoom 화상회의를 통하여 수업 진행 세부 사항을 공유하며 협업하였다. 사전·사후 설문조사, 수업 자료 공유 및 연구 진행 사항을 수업 직후 서로 알리는 방법으로 협업을 진행하였다.

7) Webex와 Zoom은 모두 기본적으로 강의에 필요한 화면 공유, 채팅, 소회의실 기능이 가능하다.

년 이상(A대학 18명(85.4%), B대학 18명(94.7%))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어 수준을 살펴보면 한국 A대학의 경우 토픽 3급부터 6급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홍콩 B대학은 토픽을 취득한 학생이 2급 1명뿐이고 초·중급 수준이 3명(15.8%), 중급 13명(68.4%) 고급 3명(15.8%)으로 다양했다.

아래의 <표 1>은 연구대상에 관한 상세 정보이다.

표 1. 연구 대상

구분	한국 A 대학	홍콩 B 대학
1 과목명	발표와 토론	미디어로 배우는 한국어
2 온라인 수업 도구	Webex	Zoom
3 성별	여 19, 남 2	여 16, 남 3
4 국적	전원 중국	홍콩 17, 대만 1, 말레이시아 1
5 한국어 학습 기간	무응답(1), 1년 이하(2), 1-2년(12), 2-3년(2), 3-4년(2), 4-5년(2)	1년 이하(1), 1-2년(10), 2-3년(6), 3년 이상(2)
6 TOPIK	무응답(1), 3급(3), 4급(7), 5급(7), 6급(3)	2급(1), TOPIK 없음(18) ⁸⁾
7 한국문학 학습 경험	유 10, 무 11	유 3, 무 16
8 한국문학 작품을 읽은 경험	유 12, 무 9	유 4, 무 18

학기 초에 패러디 시 쓰기 수업을 위하여 한국문학을 사전에 접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한국 A대학의 수강생들은 “알고 있는 한국문학 작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9명(42.8%)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고전, 현대 소설, 청소년 소설, 산문, 등 장르가 비교적 다양했으나,⁹⁾ 이 중에서 현대시를 접한 학습자는 없었다.

홍콩 B대학의 수강생들 중 한국 문학 작품을 다른 수업에서 배운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3명(15.8%)이었고 스스로 한국 작품을 읽어본 적이 있다는 학생들은 4명(21.1%)이었다. 알고 있는 한국문학 작품이 있다는 응답은 1명(12.5%)¹⁰⁾이었다. 한국 A대학 수강생과 B대학 수강생을 비교·분석해보면 토픽 4급 이상 취득자가 많은 한국 A대학의 수강생들이 한국어 수준이 더 높고 한국 문학을 학습한 경험이 있었다.

2. 연구 절차

1) 패러디 시 선정

8) 홍콩 B대학의 경우 토픽 점수를 취득한 학습자가 1명(2급)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판단한 한국어 수준과 수강 내역, 교수자가 판단한 학습자의 수준을 종합하여 판별하였다. 이에 따라 19명의 학습자들 가운데 초·중급은 3명(15.8%), 중급은 13명(68.4%), 고급은 3명(15.8%)으로 나누어진다.

9) 고전으로는 3명의 학습자들이 <춘향전>을 언급했다. 에세이로는 강세형의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등, 현대 소설은 천명관의 <고래>,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등, 청소년 소설로는 이금이의 <유진과 유진>이 있었다. 또한 <미움 받을 용기>와 같은 번역서를 언급한 학습자도 있었다.

10) 1명의 응답자는 조은정 작가의 <적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들>을 읽었다고 답했다.

패러디 시 쓰기는 단순히 읽기와 쓰기의 결합 그 이상을 추구했는데, 시 창작이 그러하듯 패러디 시 쓰기도 창의적이고 압축적인 형태로 자신의 심리를 표현함으로써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킨다. 패러디 시 쓰기 활동을 위한 작품은 한국 현대시에서 선정했으며 두 연구자가 합의한 작품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의 언어 수준에 맞는 작품을 선정한다. 문법 및 어휘가 학습 목표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둘째, 패러디에 용이한 작품을 선정한다. 형식이 반복적이며, 이로써 학습자들은 시의 형식과 언어뿐만 아니라 패러디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에게 비교적 익숙한 작품을 고른다. 학습자들은 한국 문학에 대한 접촉 경험이 많지 않으므로 작품 및 그 내용이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작품을 고른다.

넷째, 학습자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 학습자가 시를 읽고 자신의 경험과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김소월의 ‘진달래꽃’, 황인숙의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김인육의 ‘사랑의 물리학’, 정호승의 ‘수선화에게’의 총 네 편의 시를 두 연구자가 함께 검토해 보았다. ‘진달래꽃’은 한국인의 정서 ‘한(恨)’을 논할 때 언급되며,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한 번쯤 거론되는 작품이다.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는 의성어와 의태어 학습에 유용하고 패러디 시 쓰기에도 용이한 작품이다. ‘사랑의 물리학’은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끈 드라마 ‘도깨비’에서 소개된 작품으로 학습자들이 이 드라마를 시청했다면 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각 작품 모두 학습 자료로서 가치가 높았으나, 대중적으로 비교적 친숙하며, 학습자의 목표 문법 및 어휘를 학습할 수 있고, 이들의 경험과 사고를 보다 용이하게 끌어낼 수 있는 작품으로 ‘수선화에게’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시 ‘수선화에게’에서 반복되는 구절 “아프니까 사람이다”는 이미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베스트셀러 도서 제목을 비롯해 예능 방송, 광고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패러디되어 알려져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비교적 친숙하다. 또한 외로움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명시적으로 다루어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¹¹⁾

원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수선화에게
- 정호승¹²⁾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갈대 숲 속에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11) 왕녕(2019)는 시 텍스트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생소한 이유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본 교수-학습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선정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또한 패러디 시 쓰기와 같이 시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도 학습자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감정 및 정서를 다룬다면 학습자들의 보다 수월하게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며 시 창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2) 정호승. (2015). *수선화에게*-정호승 시선집. 서울: 비채.

학습 내용은 한국 A대학과 홍콩 B대학의 교수자들이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구어체와 문어체를 식별하는 것과 띄어쓰기 및 어휘, 문법 연습 및 활용은 초·중급부터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모두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의 원문에서 학습 내용으로 설정한 부분은 ㉠의 '-지 말다', ㉡의 -(으)니까', ㉢의 문어체이다. 이에 따른 학습 내용은 ㉢의 문어체 학습, ㉠의 '-지 말다'를 활용한 '조언하기' 활동, ㉡ '-(으)니까 N이다' 형태를 활용한 패러디 쓰기 활동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학습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수-학습 모형을 구성해보겠다.

2) 패러디 시 쓰기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절차

Bintz(2012:72)는 패러디는 비판적이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닌, 유머와 흥미, 유익함을 전제로 하며, 패러디 글 쓰기는 읽기 능력, 이야기 구조 이해, 쓰기 관습 및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 효용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패러디 시 쓰기 교수-학습 과정을 5단계로 나누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Bintz의 패러디 시 교수-학습 단계

단계	내용
1 단계	패러디 시 쓰기를 위한 작품 목록 작성
2 단계	원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기
3 단계	패러디 시를 쓰고, 토론하고, 수정하기
4 단계	패러디 시 발표
5 단계	성찰 및 패러디 시 쓰기 경험 공유

위 단계는 패러디 시 쓰기를 위한 시 텍스트 목록을 구성한 뒤 선별된 시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Bintz의 교수-학습 단계는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문학교육에 해당되므로 본고의 연구 대상인 외국어 학습자에 적합하도록 외국어 교수-학습 단계인 '도입-제시-연습 및 활동' 단계를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교수자는 패러디 시 쓰기 교수-학습 과정에서 수업의 목표로 삼은 문법 및 어휘를 문학 작품 맥락 안에서 연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문학 활용 수업 시 목표 문법과 표현이 연습, 확장으로까지 이어지도록 교수-학습 방안을 구성했다.

아울러 두 수업 모두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메신저, 채팅, 소그룹 회의실을 활용한 팀별 협력학습을 실시하였고 온라인 수업 도구와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패러디 시 쓰기를 협력학습으로 진행한 이유는 협력학습이 교사-학습자, 학습자-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반복, 흥미 속에서 유의미한 언어학습을 촉진시키고 학습불안감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이성은, 1999)을 교수-학습 과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수업 단계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실시간 온라인 패러디 시 쓰기 수업 교수-학습 절차

단계	내용	온라인 수업 도구
1	도입 흥미유발, 목표 문법 확인	교수자 설명(Webex, Zoom 화면 공유)

2	제시: 시 읽기	(1) <수선화에게> 읽고 문법, 어휘 이해 (2) 시적 화자의 상황 이해	개별학습/협력학습 (채팅, 소회의실)
3	연습 및 활동: 패러디 시쓰기	(1) 문장 쓰기 연습 (2) 예문 제시 (3) 교사의 패러디 시를 읽은 후 팀별로 패러디 시 쓰기	협력학습(채팅, 소회의실, Google docs) 협력학습(Wechat, Padlet, 소회의실)
4	발표 및 공유	(1) 패러디 시 공유 (2) 팀별 발표	협력학습(Webex, Zoom 화면 공유)
5	성찰	설문조사를 통한 성찰, 피드백	Google forms

각 단계별 상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Bintz의 교수-학습 단계의 '1단계 작품 선별 과정'은 교수자가 이미 선정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의 교수-학습 단계에 맞추어 '도입' 단계로 변형하였다.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원텍스트에서 배울 목표 문법을 확인한다. 2단계 '제시'는 시를 읽고 이해하는 단계로, 학습자들이 목표 문법을 이해하고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을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목표 문법 이해 정도와 연습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도구에서 채팅 및 소회의실, 컴퓨터 클라우딩(Google drive, Dropbox 등)을 활용한다.

3단계 '연습 및 활동'은 패러디 시를 쓰는 단계로 학습자들이 자신의 체험 및 상상력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과정이다. 학습자들이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이전에 시 창작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자 교수자가 패러디 시의 예를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협력학습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4단계는 학습자들이 패러디 쓰기를 한 결과물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은 결과물을 학습관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나 Padlet에 올려 공유하고 Webex와 Zoom의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팀별 발표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 '성찰' 단계는 패러디 시 쓰기 활동의 마무리 단계로 학습자들이 해당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해 보는 시간이며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다.

IV. 패러디 시 쓰기 활동을 통한 한국어문화 교수-학습 사례

1. 한국어문화 교수-학습 방안

본 절에서는 시 '수선화에게'를 활용한 패러디 시 쓰기 활동이 두 대학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수-학습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한국어문화 교수-학습 방안(시 '수선화에게')¹³⁾

단 계	세부 진행 내용	온라인 수업 도구	
		A 대학	B 대학
1	(1) 목표 문법 확인	Webex 화면공유	Zoom 화면공유
	A 대학: '나의 한국 생활',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주제로 글쓰기	LMS	
	B 대학: 시 '사랑의 물리학'으로 흥미 유발 및 목표 문법 노출		Zoom 화면공유
2	제시: (1) <수선화에게> 읽고 문법, 어휘 이해	Webex	Zoom

	시 읽기	(2) 시적 화자의 상황 이해	화면공유	화면공유
3	연습 및 활동:	(1) 협력 쓰기 학습 1: 문어체, -(으)니까, -지 마라 연습	Wechat, Webex 채팅	Zoom 소회의실 Google docs
	패 러 디 시	(2) 협력 쓰기 학습 2 - 각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학습, 유학생에게 조언하는 문장 쓰기 (2) 패러디인 “아프니까 청춘이다” 등에 대한 이해 확인 및 점검	Wechat, Webex 채팅	Zoom 소회의실
	쓰기	(3) 협력 쓰기 학습 3 - 교사의 패러디 시 읽고 이해 - 팀별(2-3명) 시 쓰기 A 대학: 한국에 유학 올 학생들에게 조언하기 B 대학: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조언하기	Wechat, Webex 채팅	Zoom 소회의실
	발표 및 공유	(1) 패러디 시 쓰기 완성	LMS	Padlet
4		(2) 수업 시간에 팀별로 발표	Webex	Zoom
5	성찰	설문조사를 통한 성찰, 피드백	LMS	Google forms

① 1단계: 도입

한국 A대학의 학습자들에게는 구어체와 문어체를 식별, 연습하는 과정과 목표 어휘, 문법 연습 및 활용이 필요했다. 이에 1단계에서는 목표 문법을 확인하고 짧은 글쓰기를 했다. 학습자가 쓴 작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학습자 작문의 예>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교환학생이었다. 한중 양국의 수업 패턴과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석 달 정도 시간을 어질어질하게 보냈다.¹³⁾ 한국의 교수님과 친구들, 그리고 다른 중국인 친구들 덕분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을 극복하고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

위의 작문은 과제로 제공했으며 학습자는 학습관리시스템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 과제를 제출하면 교수자는 과제를 수정해 주었다. 학습자는 위와 같이 목표 문법 및 어휘를 활용해 문어체 형식에 맞는 글쓰기를 한 뒤 2, 3단계에서 본인들이 시를 읽고 써야 할 글감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았다.

홍콩 B대학의 1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김인옥의 ‘사랑의 물리학’을 도입 자료로 사용했다.¹⁵⁾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사전 학습으로 예상해 온 문어체를 퀴즈로 점검했다.¹⁶⁾

13) 한국 A대학의 패러디 시 쓰기 수업은 총 2주에 걸쳐서 진행 되었다. 첫 번째 주에는 ‘도입-제시-연습 및 활동’을 수행하였고, 두 번째 주에는 학습자들이 패러디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14) 학습자 작문의 오류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했다.

15) 홍콩 B대학에서 패러디 시 쓰기 수업은 8주차 한국 드라마 ‘도깨비’의 교수-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드라마 중간에 나오는 김인옥의 ‘사랑의 물리학’이 주인공의 감정을 대변하는 중요한 매체로 제시되며 문어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입 자료로 활용하였다.

16) <미디어로 배우는 한국어> 수업은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으로 진행되어 학습자들은 수업 전에 사전 학습으로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을 스스로 공부해왔다.

② 2단계: 제시

한국 A대학에서는 학습자들이 시를 읽고 문법, 어휘를 이해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팅창을 활용했다. 교수자가 목표 문법 및 어휘를 포함한 문장의 예를 제시하면 학습자들은 모두 한 사람씩 채팅창에 문장을 쓴다. 다음은 채팅창에 올라온 학습자들의 문장과 이들의 오류를 정정한 교수자의 설명의 예이다.

표 5. 실시간 온라인 수업 내 채팅창의 예

LIU ¹⁷⁾ 님이 모두에게:	오전 11:08
한국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분류해야 해서 주의하세요	
undefined조** 님이 모두에게:	오전 11:10
-아/어서 + 명령 & 청유 X	
undefined조** 님이 모두에게:	오전 11:10
분리수거를 엄격하게 해야 하니까 주의하세요.	
CHE 님이 모두에게:	오전 11:10
한국 대중교통 너무 편리하다	
ZHAN 님이 모두에게:	오전 11:12
알바를 구하면 편의점에서 하는 일을 추천한다 . 많은 사람이하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undefined조** 님이 모두에게:	오전 11:12
대중	

시의 원문에서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의 문장을 패러디해 한국에 있는 외국 유학생들에게 조언하는 문장을 ‘-(으)니까’와 ‘-ㄴ/는다’를 사용해 쓰게 했다. <표 5>에서는 학습자들의 오류를 교수자가 수정해 주는 부분의 일부를 발췌했다.

홍콩의 B 대학에서는 교수자가 Zoom에서 ppt 화면 공유를 통하여 목표 문법 및 어휘를 설명했다. 강의 내용은 한국 A대학과 마찬가지로 문어체 연습, 문어체와 구어체의 차이, ‘-(으)니까’와 ‘-지 말다’ 문법의 활용, 제약, 예문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들은 ‘-(으)니까’와 ‘-지 말다’를 포함한 문장을 완성해서 한 명씩 마이크를 켜고 구두로 말하게 했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에 구두로 피드백을 주면서 발화 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정확한 형태로 수정한 문장을 채팅에 남겼다.¹⁸⁾

③ 3단계: 패러디 시 쓰기 및 4단계: 공유 및 발표

시 원문의 문법 및 어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2단계를 마치면 3단계에서 본격적인 패러디 시 쓰기 활동이 시작된다. 학습자들이 본격적으로 패러디 시를 쓰기 전에 교수자는 시 창작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자 교수자가 쓴 패러디 시의 예를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교수자가 쓴 패러디 시 예시

A 대학 교수자의 시	B 대학 교수자의 시
제목: 유학생에게 (1 연)	제목: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에게 (1 연)
그대 울지 마라. 피곤하니까 학생이다.	그대 울지 마라. 피곤하니까 학생이다.

17) 영어 알파벳 대문자는 학습자들의 이름(가명)이며, ‘undefined조**’는 교수자를 가리킨다. 위의 대화 내용은 실시간 채팅창의 내용에서 일부를 발췌했다.

18) 홍콩 B대학의 경우 학습자들이 한국어 타이핑에 능숙하지 않으므로 학습자들이 구두로 문장을 말하고 교수자는 발화를 수정하고 문장을 채팅에 남겨주는 것으로 연습을 진행하였다.

<p>유학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견디는 일이다. 도와주지 않는 친구들을 괜히 기다리지 마라. 다른 친구들도 과제, 학비, 생활비, 말 안 통하는 집주인 때문에 가끔씩 눈물을 흘린다. (중략)</p>	<p>한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견디는 일이다. 친구들도 잘 모른다고 슬퍼하지 마라. 다른 친구들도 문법, 발음, 단어, 퀴즈, 시험, 숙제 때문에 가끔씩 눈물을 흘린다. (중략)</p>
---	--

다음은 교수자의 시를 참고해 A 대학 학습자들이 협력쓰기 활동으로 작성한 시의 예이다.

(1연)

그대 놀라지 마라. 여름에도 수박을 비싸게 파는 한국이다.
마트에서 사과와 바나나¹⁹⁾ 더 저렴하니까
괜히 수박 찾지 마라
가끔씩 이런 과일 먹어도 괜찮다.

(2연)

그대 당황하지 마라. 겨울에도 아이스커피를 마시는 한국인이다.
겨울에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른 친구들도 차가운 물, 음료 때문에
가끔씩 배가 아프다고 한다.

(3연)

그대 겁내지 마라. 큰길에도 쓰레기통 거의 없는 한국이다.
쓰레기의 수거 규칙은 매우 엄격하니까
쓰레기 봉투는 자기 것으로 쓰자
절대 우체통을 쓰레기통으로 간주하지 마라.

A 대학에서는 패러디 시 쓰기를 과제로 부여하고 협력학습으로 수행하도록 했는데 학습자들이 Wechat²⁰⁾에서 서로 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함께 고민하고 한국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진 뒤에 패러디 시 쓰기를 완성하게 했다. 과제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학습관리시스템에 올리도록 했으며 교수자는 제출한 과제를 확인하고 학습자들의 글에서 드러난 오류를 정정해 주었다. 학습자들은 팀별로 쓴 패러디 시 상의 오류를 수정한 뒤, 발표 시간을 가졌다.

B 대학의 경우, 3단계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협력활동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협력활동에서는 제시 단계에서 익힌 문법과 어휘를 연습하는 활동을, 두 번째 협력활동에서는 패러디 시 쓰기를 했다. 첫 번째 협력활동은 Google docs²¹⁾를 통하여 진행했는데, 학습자들은 문어체, ‘-(으)니까’, ‘-지 말다’의 활용 연습을 Google docs에 올린 활동지에 조별로 답을 쓰게 했다. 두 번째 단계는 패러디 시 쓰기로 홍콩 B대학에서도 패러디 시 쓰기에 앞서 교수자의 시를 예시로 제시했다. 학생들은 교사의 시를 보고 두세 명씩 팀을 이뤄서 Zoom 소회의실에서 어떻게 시를 완성할지 팀원들과 상의를 한 후, Padlet²²⁾에서 패러디 시를 완성했다. 패러디 시 쓰기의 요

19) 학습자들은 조사를 빈번하게 생략했는데 이는 시적 운율을 맞추기 위함이 아닌 일종의 오류(조사 누락)이므로 교수자는 이를 시적 허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학습자의 오류를 정정해 주었다.

20) 수업 중 교수자가 소그룹을 나누어 하는 방법에 비해 학습자들이 팀원끼리 Wechat으로 문장을 완성한 뒤 Webex 채팅창에 문장을 올리는 방법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21) Google docs는 Microsoft office 파일을 업로드하고 공유하는데 편리하고 여러 명이 한 문서에 동시 접속이 가능하여 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접속자가 문서 작업을 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22) 패러디 시 쓰기의 결과물을 취합하는 데 Padlet을 사용한 이유는 학생들 전체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유하기 유용해서이다.

구 조건은 2연, 총 8행의 시를 써야하고, -(으)니까, 문어체를 꼭 포함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그룹별로 나눠진 소회의실에 방문하여 학습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시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도움을 주었다.

다음은 B 대학 학생들이 완성한 패러디 시 쓰기와 Padlet에서 공유한 시 쓰기 결과물의 예이다.

(1연)

그대 울지 마라. 어렵지 않으니까 한국어다.
한국어와 광둥어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같이 공부할 사람이 없어도 슬퍼하지 마라.
다른 학생이랑 같은 취미가 있기 때문에 빨리 친해질 수 있다.

(2연)

한국 친구들 많으니까 한국어를 공부한다.
더 편하게 싸울 수 있다.
친구들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으니까
친구들 콘서트 같이 갈 수 있다.
같이 드라마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한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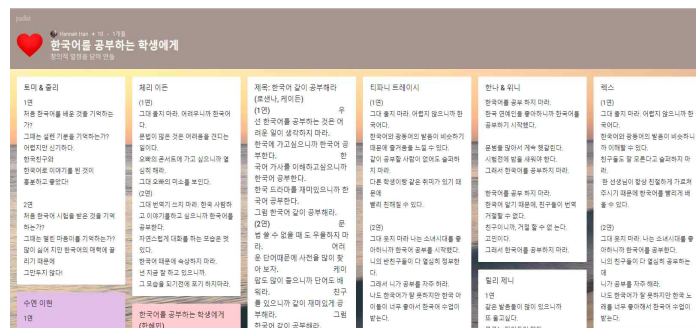


그림 1. Padlet에 공유한 패러디 시 쓰기 결과물

소회의실 활동 관찰 결과, 학생들은 Zoom의 소회의실에서 함께 패러디 시를 쓰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한국어 학습 경험에 대하여 팀원들과 이야기하며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었고, 소회의실에 교수자가 입장했을 때에 궁금한 것을 질문함으로써 교수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도 이루어졌다.

④ 5단계: 성찰

A 대학의 성찰 단계에서는 “<나의 유학생생활> 쓰기 활동과 시 읽기, 쓰기 활동을 한 후 무엇을 배우게(혹은 알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하게 했다. 학습자들은 주로 “여러 방면의 한국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다”, 혹은 “다른 친구들의 경험에서도 많은 문화적 차이를 알게 되었다”, “시 쓰는 방법을 배웠다” 등으로 답했다.

홍콩의 B대학의 경우, Google forms로 설문 문항을 공유하여 학습자들이 해당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의견을 수집하였다. 학생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에게> 쓰기 활동과 시 읽기, 쓰기 활동을 한 후 무엇을 배우게(혹은 알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어려운 단어를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친구들과 같이 해서 말하기 연습도 할 수 있었다”, “한국 작가들이 작품을 쓸 때 자주 사용하는 ‘ㄴ/는다’ 형식을 배우고 쓰기를 더 잘 하는 방법을 배웠다”, “실용적인 단어도 많이 배웠다”, “한국어 쓰기에 더 익숙해지고 한국어로 시를 쓸 수 있게 됐다”라고 응답했다.

이를 통하여 패러디 시 쓰기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쓰기에 도움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나아가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습 결과 및 효용

본 절에서는 패러디 시 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피드백 및 그 효용을 알아보고자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학습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번호	내용	지역	아주 많이	많이	보통	별로	아니요
1	친구와 함께 패러디 시 쓰기를 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한국	3 (15%)	9 (45%)	8 (40%)	0	0
		홍콩	4 (21.1%)	11 (57.9%)	2 (10.5%)	0	2 (10.5%)
2	친구와 함께 패러디 시 쓰기를 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해 친구와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한국	6 (30%)	8 (40%)	6 (30%)	0	0
		홍콩	4 (21.1%)	6 (31.6%)	6 (31.6%)	1 (5.3%)	2 (10.5%)
3	문학 작품 읽고 난 후 패러디 시 쓰기를 통해 앞으로 한국문학을 더 읽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한국	4 (20%)	6 (30%)	7 (35%)	1 (5%)	1 (5%)
		홍콩	3 (15.8%)	7 (36.8%)	4 (21.1%)	3 (15.8%)	2 (10.5%)

패러디 시 쓰기 수업을 하고 난 후, 학습 결과 및 효용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A대학에서는 LMS로, 홍콩 B대학에서는 Google forms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친구와 함께 패러디 시 쓰기를 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나’는 질문에 한국 A대학 학습자들은 14명(70%)이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홍콩 B대학 학습자들은 10명(52.7%)이 ‘그렇다’, 2명(10.5%)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패러디 시 쓰기 주제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A대학에서는 ‘유학생들에게 조언하기’라는 주제로 학습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겪은 문화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홍콩 B대학의 주제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조언하기’여서 학습자들의 쓰기 방향에 따라서 한국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다.

패러디 시 쓰기를 하고 난 후 한국 문학을 더 읽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는 한국 A대학 10명(50%), 홍콩 B대학 10명(52.6%)의 학습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지만, ‘별로’라고 대답한 학습자도 한국 A대학 2명(10%), 홍콩 B대학에는 5명(26.3%)이 있었다. 이는 패러디 시 쓰기 수업이 학기 전반에 걸쳐 진행된 것이 아니라 1회성 수업에 그쳤기 때문에 한국 문학을 이해하고 나아가 더 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학습 결과 및 효용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패러디 시 쓰기 활동을 통하여 한국 문학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학습자들 간에 한국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으나 앞으로 한국

문학을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절반 정도에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한국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고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패러디 시 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며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학습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패러디 시 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은 Bintz(2012)의 패러디 시 쓰기 교수-학습 과정과 외국어 교수-학습 단계인 '도입-제시-연습 및 활동' 단계를 반영해서 '도입-제시-연습 및 활동-발표 및 공유-성찰'의 단계로 수정하여 사용했다. 각 단계에서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Webex의 채팅, Zoom의 소회의실, Wechat, Google docs, Padlet을 활용했다. 또한 '쓰기'를 협력학습으로 진행함으로써 쓰기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수업 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패러디 시 쓰기를 활용한 한국어문화 수업은 학습자들에게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혔고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본고는 실시간 온라인 학습 도구인 Webex와 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국내 및 해외의 교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패러디 시 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패러디 시 쓰기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를 수치상으로 검증하기에는 수업 횟수가 부족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로 패러디 시 쓰기 교수-학습을 여러 차례 시도한 후,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 및 정의적 요인과의 관계를 양적연구로 검증해보려 한다.

앞으로 한국어 수업은 다양한 온라인 학습 도구와 매체를 활용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연구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설계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혁웅. (2010). *시론*. 서울: 문학동네.
- 노정은, 임수진, 안윤숙. (2020).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 환경에서의 교수자 및 학습자 인식에 대한 사례 연구 -H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1(4), 21-53.
- 김시연. (2020). ZOOM을 활용한 중국 대학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교육 사례 -상해 S 대학 한국어과 한국어 말하기 수업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80, 1-29.
- 김현주. (2020). 외국인 학부생의 비대면 한국어 수업 경험에 대한 탐색: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1(4), 1679-1692.
- 박진철, 장지연. (2020). 온라인 한국어 쓰기 수업에서의 동료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연구- Zoom을 활용한 과정 중심 쓰기 수업을 중심으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9, 181-200.

- 서아람, 안기정. (2019).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외국어교육연구*, 33(4), 83-119.
- 손진은. (2015). 교실 협동학습 패러디 시 쓰기 수업의 실제. *어문학*, 130, 159-186.
- 손혜숙. (2015). 대학 글쓰기에서의 패러디 글쓰기 교육방법 연구. *리터러시연구*, 11, 77-98.
- 안정민, 한혜민. (2020). 한국어 교사의 교수실재감 인식 연구. *한국어교육*, 31(4), 139-159.
- 왕녕. (2019).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반한 한국 현대시 읽기 교육 연구 -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미출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원혜영. (2014). 과제 기반 한국어 수업전략 구축에 관한 연구- ‘과제’와 ‘과정’을 결합한 쓰기 수업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39, 275-302.
- 윤영. (2013).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문학교육 방법 연구 -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비판적 수용을 바탕으로-. *언어와 문학*, 9(2), 215-243.
- 이가원. (2012).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방안 연구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패러디(Parody) 활동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8, 325-355.
- 이성은. (1999). 협력학습 전략을 활용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이중언어학*, 16, 289-315.
- 이은성. (2020).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 효과 연구-한국어 학업 성취도와 학습자 만족도를 기준으로. *이중언어학*, 81, 269-287.
- 이홍매. (2008). *한국어교육에서 ‘모방시 쓰기’를 활용한 현대시 교육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정끝별. (2017). *패러디*. 서울: 모악.
- 정호승. (2015). *수선화에게-정호승 시선집*. 서울: 비채.
- Chen, G. M., & Starosta, W. J. (1998.). “A review of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awareness”. *Human Communication*, 2, 27-54.
- Bintz, W.P. (2012). “Using Parody to Read and Write Original Poetry”. *English Journal*, 101(5), 72-29.

<Korean Abstract>

한혜민, 조영미. (2021).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패러디 시 쓰기를 활용한 한국어문화 교수-학습 방안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35(1), 1-16.

본고는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서 한국문학을 활용한 한국어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로, 한국 내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와 해외의 한국학 부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 현대시를 활용한 패러디 시 쓰기를 한국어문화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시간 온라인 학습 도구는 Webex와 Zoom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홍콩의 <미디어로 배우는 한국어> 수강생 19명과 한국 내 <발표와 토론> 중국인 대학원생 20명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패러디 시 쓰기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수-학습이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며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학습하는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패러디 시 쓰기를 활용한 한국어문화 수업은 학습자들에게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혔고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학습자들 간에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가 차후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수-학습 설계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도 기대한다.

Key words: Parody,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education, Synchronous online class, Korean writing education / 패러디, 한국어 문화교육, 실시간 온라인 수업, 한국어 쓰기 교육

Examples in: Korean

Applicable Languages: Korean, etc.

Applicable Levels: Tertiary

Han, Hae Min

Lecturer

Minor in Korean Programme,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AG502, Dept of Chinese & Bilingual Studies, Hung Hom, Kowloon, Hong Kong

TEL: +852 2766-6361

E-MAIL: hannah.han@polyu.edu.hk

Cho, Young Mi

Researcher

Korean Research Center, Kaohsiung University

700, Kaohsiung University Rd., Nanzih District, Kaohsiung 811, Taiwan, R.O.C.

National Kaohsiung University(台灣國立高雄大學校 韓國研究中心)

TEL: +886 7-59176562

E-MAIL: youngmic@hotmail.com

received in January 19, 2021

revised version received in February 05, 2021

revised version accepted in February 07, 2021